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양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 등록 교우 목장편성: 박성근(주사랑), 장영자(양떼)
2. 오늘 목장모임 후에 '임직자 훈련'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3. 오늘 목장모임 후에는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목장별로 비치된 전도물품을 가져가셔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3월 월삭새벽기도회가 3월 1일(목)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3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다음 주일낮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경건함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 다음 주일낮예배 기도담당은 권용기 집사님입니다. 오후찬양예배는 김경미 권사님입니다.
7. '몽골 단기선교여행'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전교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일정은 7월 16일(월)~21일(토)까지 진행됩니다. 1차 모집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은 개별적으로 담임목사님께 알려주세요.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 날짜	3월 4일	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예배기도(오전)	오진석 집사	신동기 집사	오승현 집사	이준화 집사
예배기도(오후)	김경미 권사	봄맞이 대청소	이영선 권사	목장주일
주일식사담당	에스더 목장 (오호근 권사)	한나 목장 (이영선 권사)	아가페 목장 (최윤정 권사)	헵시바 목장 (김금옥 권사)
토요일청소	둘로스 목장	주사랑 목장	에덴 목장	갈렙 목장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하늘문교회 비전 2020을 위해서
2. 남여 선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3. 유치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4. 새롭게 임직을 받는 피택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준비되도록
5.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양강암 선교사님(U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쉼터,(국내) 사역자를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툼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구암리 427번지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서교독	교독문 15번(시편 27편) 다같이
*경배찬송	20장(통 41장)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284장(통 206장) 다같이
대표기도	권용기 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신 34:1-8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실패, 끝이 아닙니다’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다같이
*결단송	620장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단
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어라

요 15장 7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주일 & 전도주일로 합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요한복음 강해 요 6:16-21 '두려워 말라'(5)	허영전도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2)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시편 묵상 시 68:1-10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봄, 언제 올까 싶었는데’

젖은 눈에 유난히 추웠고 그래서 더 길게만 느껴졌던 겨울. 영하 15도, 20도를 넘나들며 마치 겨울왕국처럼 섬뜩한 한기를 몸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듯하다. 간밤에도 눈이 내렸다. 교회 마당으로 나가니 햇살에 빛나는 흰 눈에 눈이 부시다. 꺾기를 때리는 차가운 바람에 정신이 번쩍 든다. 순백의 눈밭을 밟기가 아까워서 한참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교회 인근에 있는 들로 나서보니 세상은 달라져 있다. 대지를 덮고 있던 눈은 스르르 녹고 퐁퐁 열었던 시냇물도 재잘재잘 소리를 내며 흘러간다. 그리고 보니 어느새 입춘, 우수도 다 지난 2월 하순이다. 어둑어둑했던 출근길도 이제는 환해져서 발걸음이 제법 가볍게 보인다.

언제 올까 싶었는데, 모두가 겨울올림픽에 정신 팔려 있는 사이 봄은 그렇게 살금살금 우리 곁에 다가와 있었나 보다. 아기 고양이 솜털처럼 부드러운 그 기운에 마음마저 녹아내리게 만든다. 차가운 공기일망정 한 호흡에 훅하고 들여 마셔 본다.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서다. 사람마다 처한 형편은 다르지만 봄은 누구에게나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삶의 현실에서 여전히 춥다고 느끼는 게 문제다. 그러면 여전히 움츠려 들기 마련이다. 봄기운은 나를 부르지만 그런 현실에 익숙해지다 보니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살게 된다. 남들과 비교해서 무엇이 없다고 움츠려든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고 삶의 주변을 살펴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에도 기적이 나타난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바로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의 양치기를 불러 사용하셨다. 자신을 자신의 눈으로도 타인의 눈으로도 보아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서야 한다. 우리는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과 의기소침의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면, 그 어떤 힘겨운 상황도 극복할 수 있다. 봄, 그러면 언제 올까 싶었는데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듯 언젠가는 봄의 향연을 노래할 날이 있을 것이다.

Written by 허영진